

「 가나안 이야기 」

다비드 • 하다스 • 타미 • 다나 • 토하

shalom! 세종시 안식관에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드리는 첫 번째 문안 인사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지난 2월 19일 이스라엘을 떠나 무사히 20일(금)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는 모 교회인 대전 늘사랑교회에서 제공해준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안식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이스라엘에서 보낸 4년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안식년을 통해 쉼과 새로운 2기 사역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현장 사역 가운데 물질로 기도로 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 감사의 마음을 이번 안식년을 통해 찾아 뵙고 직접 교제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 안식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국에 도착한지 이제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아직은 시차 적응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깨어 있고 낮에는 졸립고..., 처음 한국에 오자마자 그리고 지금 정기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각했던 안식년과는 좀 다르네요...^^ 해서 아직까지는 초기 안식년 기간 중 호된 육체 훈련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곧 정상 컨디션으로 회복되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면 본격적으로 안식년의 매력에 빠져볼 예정입니다.

2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3월에는 중순까지만 몇 가지 일들(가족 방문, 건강검진, 본부 사역 보고 및 행정민원 등등...)로 잠시 찾아뵙는 일정을 미뤄야할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 모두 안식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큼니다. 특히 아이들이..., 첫째 담희는 2돌 되기 전 한국을 떠났고, 단아와 도하는 현지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한국입니다. 해서 세 아이 모두 벌써부터 의욕이 넘치고 또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빠로서 그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생각입니다. 물론 아내에게도요...^^ 보통의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기간을 쉼을 통한 재충전, 회복 그리고 자기개발의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기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특히 저희 가정의 경우 이스라엘에서의 2기 사역을 위한 비자(종교비자)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안에 안정된 2기 사역의 신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알림: 안식년 기간 중에는 정기서신을 2달에 한번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 있었던 일들

한국을 떠나오기 전주에는 대전 늘사랑교회 청년들이 방문해서 8박 9일의 일정으로 전반부 5일은 비전트립의 시간을 가졌고, 후반부 2일은 현장 사역으로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사역 모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이번 방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품고 또한 이 땅의 중보자로 설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틀간의 섬김 사역은 현장에 커다란 보탬과 도움이 되었고 현장 사역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몸으로 섬겨야하는 고된 일들 하나하나 마다하지 않고 직접 땀 흘리며 수고해준 청년들, 그러면서도 감사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맙고 또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중보요청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지난 시간 열심히 수고하며 봉사했던 장소 가운데 팀나 국립공원 내에 있는 성막 현장에 지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성막이 많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미국 남침례교(I\*B)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으로 이스라엘 내에 복음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곧 다가올 유월절 절기를 맞아 최대의 방문자들이 찾아오게 될 이곳이 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타마르 프로젝트 이야기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몇 주 전 타마르 팀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제안한 의견에 따라 베두인 마을에 나무를 심기로 하고 관련 준비를 했습니다. 가급적 떠나기 전 심으려 했지만 예루살렘에 폭설 예보가 있었던 지라 이번 주에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남아 마을을 섬기고 있는 사역팀원들이 보내온 사진을 통해 나무가 잘 심겨진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에는 나뭇잎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멀지 않은 시일에 베두인 마을이 철거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철거 명령이 오래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어디로든 떠나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곧 철거될지도 모르는 그곳에 왜 나무를 심었어야 했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그 불안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정착과 안정에 대한 희망이 그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들처럼 곳곳이 서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자라 열매 맺는 것처럼 아직은 기대할 수 없는 그 나무들에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열매가 맺듯 트마림(베두인 아이들)에도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그 바람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떠나오던 날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



성막 내부 및 주변 정리작업



페인트 작업(벧티스트 마을)



파손된 성막과 주변



마을에 심겨진 나무

## 「 기도제목 」

“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라 ” (빌1:27a)

1. 계획했던 한국에서의 생활과 2기 사역 준비(종교비자)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2. 안식년의 기간이 쉼과 회복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3. 타마르 팀원들을 위해 그리고 베두인 아이들(트마림)이 열매 맺는 나무들로 자랄 수 있도록
4. 요압 아저씨 가정과 이브라힘 가정의 가족 구원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타미,다나,토하)
- 외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
- 외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mailto: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mailto:mindlle-1@hanmail.net)

## 「 연락처 」

- ※ 주 소 :  
세종시 금남면 용포2길 70, 두진리버빌 아파트 102동 1009호  
(안식년 기간에 머물게 될 안식관 주소입니다.)
- ※ 연락처 :  
■ 휴대폰: +82-(0)10-9523-0432 (정재석)  
+82-(0)10-6849-7632 (강혜정)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jaesuk96@gmail.com](mailto:jaesuk96@gmail.com)